

부활하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1-11)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한다. 사도바울이 쓴 기록인데, 부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6절에 보면 이 글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 중에서 반 정도는 살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부활을 기념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언약으로 잡는 시간이다. 제목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늘 듣지만 부활한다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그 때 살아나셨기에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뜻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인생도 부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생명의 부활이 가장 중요하고 인생도 살아야 한다.

인간은 원죄로 인해 많은 고난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다.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면 어떤 고난도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죽음이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으면 세상의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완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든지 죽음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이 없다. 죽음만 해결되면, 안 죽으면 되는데 이게 맘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서면 누구든지 불안하고 두렵다. 모르기 때문이다. 죽음은 아무도 피할수 없는 울무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죽으면 그렇게 슬피 우는 것이다. 그리고 발악을 하기도 한다. 있는 힘을 다해 안 죽으려 하지만 결국 안 된다. 누구든 죽는다. 그 때 되면 마귀가 데리러 오는 것이다. 자기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안 간다고 난리를 친다. 주위 사람은 안 보이기에 모르고 동참도 못한다. 동참해도 할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에서부터 구원 받았다. 죽어도 안 죽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이다. 완성했다는 뜻이다.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선언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을 전파했던 주요 내용이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가. 수많은 핍박속에도 신자가 많이 증가했다. 하나님이 역사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죽음이 큰 문제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래서 복음은 아주 현실적인 것이다. 이것은 공중에 뜬 이야기가 아니다.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가장 실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복음 아니면 절대 안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오게 된 이유를 이야기 해 놓았다. 언약을 깬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하고 이 증거로 많은 것을 나열해냈다. 나사로는 죽어서 냄새도 나는데 살아났다. 세상에 죽었다가 냄새나는데 살아난 사람이 있는가? 나사로 밖에 없다. 아무도 없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도 있다. 죽어서 무덤에 가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라니까 일어났다. 그리고 수병성 여인의 아들이 죽었지만 엘리사로 인해서 살아났다. 구약의 이야기이다. 이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증명하고, 도장 찍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래서 스스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우리는 전부터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부활 안 믿어도 예수님 믿으면 부활된다. 그러나 부활을 믿으면 누릴 것이 많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당연히 나도 부활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망이다. 내 인생도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것들이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은 부활을 믿는 것이 조건이 아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활 안 믿어도 부활이 된다.

1.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다. 진짜 놀라운 일이다.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없다. 나사로처럼 냄새나는데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다. 흑관에 들어가 있다가 살아난 사람은 진짜 죽은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간증 들어보면 진짜 죽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돌아가라고 해서 살아난 사람도 있다. 하나님이 관련된 경우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사망을 정복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하고 사망은 관계없다는 것이다. 우리도 사망을 정복할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단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사단의 목표는 사람을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 일이 끝난 것이다. 우리와 관계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선언이다. 본래 예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다. 죽으려고 일부터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일부터 죽으셨

는데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가? 본래는 죽는 일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일부터 죽으신 그 분이 본래의 생명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생명이라는 선언인 것이다. 인간에게는 생명이 필요하다. 우리가 생명의 과실을 먹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해도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땅에서는 뛰어난 영웅이어도 죽어서 지옥가면 아무 소용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이것이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부활의 의미이다. 첫 열매이므로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도 그를 따라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최고로 중요한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믿음 안에서 죽으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너도 부활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니가 영원히 부활되면 니 인생도 부활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나도 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수 많은 사람을 살렸고 내게 오는 모든 사람을 살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13절에 만일 죽은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다.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 못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살릴 계획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것 말고 다른 이유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우린 이것을 믿고 두려워 한다. 그리고 이것을 내 맘에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나는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너는 죽을 것이라는 사단을 박살내야 한다. 이것을 소망으로 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소망의 인내, 부르심의 상이라는 말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고 최종의 목표이다. 그래서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믿음도 의미 없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의미 없다는 것이다.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잘 살아도 아무 의미 없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마음에 새겨야 한다. 우리는 이땅에서 잘 되는 것이 소망이다. 전도자도 응답 많이 받고 전도 많이 하는게 소망이다. 귀한 축복이다. 그러나 마음에 근본으로 잡을 것은 나는 그리스도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완전 속아서 가장 불쌍한 사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갖출수 있는 것이다.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구름과 나팔로 임하실 그 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월이 많이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 날, 마지막 때를 기준으로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를 정해야 한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이다. 죽는 날에 맞춰야 하나님께 맞게 된다. 거기에 내 생각이 맞춰져야 말씀이 맞게 된다. 이것이 안되면 말씀이 내 방향하고 다르게 된다. 이 눈을 가지는 것이 지혜이다. 다시 한번 결심하고 전도, 선교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누리는 것은 어디 갔는가? 전도와 선교를 지속하려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전도는 영권 운동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물론 내 개인도 영적으로 승리하고 누리고 흑암세력 꺾어야 한다. 그것과 함께 내가 이런 인생, 전도와 선교의 인생을 살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내 인생을 놓는 것이 지혜이다. 아주 잘한 일이고 굉장한 축복일 뿐 아니라 내 인생을 살리는 지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방향 맞춰야 한다.

오늘 본문 2절에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라고 했다. 사도 바울이 전했다고 했다.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고 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개발한게 아니라 자기도 예수님에게 받았다는 것이다. 그것을 전했다는 것이다. 부활과 보혈, 영원한 언약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런것처럼 마지막때를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전도하게 되어 있다. 전도자의 인생을 누구나 살게 되어 있다. 이것은 노력하고 힘쓰는게 아니라 최고의 응답의 길이고 인생을 살리는 길이다. 내 마음에 있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길이다. 전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눈을 떠야 한다. 이것 모르면 인생의 갈등 생기고 그걸을 이길 소망도 없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누리고 내 인생은 전도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답이요, 틀림없는 것이다. 금방 안된다고 속으면 안된다. 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열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작품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 마지막때 우리는 휴거되는 그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자의 삶을 살고 거기에 인생을 맞추게 된다. 그리고 복음을 만나자마자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도 있다. 자꾸 이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 누리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면 결국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최고로 행복하다. 최고로 감사하다. 안되어져서 그렇지,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는 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말세가 될수록 이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중요하게 된다.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고 복음 전하는 자만 보이게 될 것이다. 자꾸만 이것이 중요해져가는 시대가 되어간다. 다르게 중요하다면 그 사람은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로 중요해서 모든 것을 맞춰야 하는데 다르게 중요하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안 맞는 것이다. 8차 자체 캠프때 하나님이 중요한 많은 문을 열기 바란다. 이 캠프가 사도바울의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도바울의 캠프를 표현하는 결정적인 단어가 바로 '절대 제자를 만나는 것이다. 이번 캠프에 이런 역사와 치유가 일어나기 바란다.

2.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때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운동하고 계시다. 사역하고 계시고 살리고 계시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릴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권세와 길도 알고 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므로 우리도 이 비밀을 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 우리 자신도 살아있는 삶을 살수 있다. 우리도 복음을 아니까. 복음의 능력과 권세 아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을 살릴수도 있다. 간단하다. 복음을 전달하면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러면 계속 살아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계속 문을 연다. 그 사람의 개인의 인생의 문을 계속 연다.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연다. 복음을 줘서 복음을 누리는 방법을 계속 말해 준다. 다른 것에는 길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다.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 살아났으므로 주님으로 우리도 사람 살릴수 있다.

렘넌트 7명도 이렇게 살았다. 자기 자신도 살았고, 미래, 과거도 살려버렸다.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살리나?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것이다. 옛날에는 저주였는데 다시 해석하니 발판이 된 것이다. 오히려 그때 그런일이 없었으면 어떻게했느냐며 감사로 바뀌는 것이다. 이런 간증 우리도 많이 있다.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하고 나의 과거도 역전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전천후 증인이 되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 없다. 내가 옛날 그 일보다 힘든가? 이렇게 되면 증인으로 살게 된다. 그리고 이 7렘넌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렸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도 살렸다. 요셉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아마 겁을 먹었겠지만 요셉은 그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안 부를 것이라는 것을 결론내고 살아난 것이다.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그 가정 다 살렸다. 감옥에서 장관도 살리고 나와서 왕도 살리고 그 지역도 살렸다. 자기 가문도 다 살렸다. 아무도 죽인자가 없다. 이것이 언약이고 복음이다. 시시하게 누가 무슨 말했다고 걸려 넘어가지 못하면 복음 버려야 한다. 누가 조금 말했다고 머리 싸매고 누워 있으면 어떻게 세계 복음화 하나? 부질 없는 것이다. 다 버려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부활이다. 무조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 그런데 내가 살고 난 후에 살리겠다는 것도 틀렸다.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서 살리면서 내가 살아야 한다. 내가 사는 것은 조건이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나도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살리는 것이다. 언약으로 살려야 하기에 내가 언약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살릴 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언약으로 살 때 하나님은 항상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제대로 준비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문을 열기도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도 언약을 잡고 살아야 한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내가 언약을 잡고 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말씀이 우리의 삶 중에 성취될 것이다.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말할자가 없다. 그래서 말씀 인도 받으면 언약을 더 깊이 누리게 되고 언약으로 도전하게 된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고 증거 일어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내 주위에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혹 언약의 삶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라.

먼저 누리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에게 많은 구체적인 언

약들이 있다. 그 중에서 절대 언약이 있다.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이다. 이 근본 언약을 위한 구체적인 언약이 바로 부활 메시지이다. 이 부활 메시지 안에 237, 치유, 서밋 다 들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언약 따라간 사람은 다 승리하고 정복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비밀이고 지혜이다. 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 뿐이고 변하지 않는다. 맞추기만 하면 된다. 이것으로 우리 인생 끝낼수 있다. 가문 가정 다 살릴수 있고 계속 문 열리게 된다. 문이 자꾸 열려서 못 말려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축복 있기 바란다. 중요한 비밀이고 지혜이다. 어디를 가도 능히 살아남는 것이다. 결국 그 곳을 살리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연속적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고난과 함께 오기에 속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것은 답을 주고 응답을 주기 위한 과정이다. 이것을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족한 인생 살아도 그리스도 믿으면 부활 된다. 참 놀란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고 배경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답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인생 정복하게 된다.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믿는 것이다. 그래서 내 수준에서 믿으면 되는 것이다. 내 수준으로 언약잡고 말씀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따라 당신의 뜻을 이룬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누리는 비밀이 더 깊어지게 된다. 우리도 깊은 기도 해야 한다. 우리도 24시 한분 해야 하지 않겠나? 이 시대는 24시 시대이다. 왜냐면, 24시를 외치는 자의 복음운동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연이 아니다. 땅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필연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필연은 복음이다. 이 복음을 이 시대의 메시지 안에 있다. 그런데 거기서 24시 말하면 우리에게 뜻이 있는 것이다. 복음이 장난인가? 예수님 십자가 죽어서 이루신 것인데 장난인가? 그렇다면 이건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안에서 세계 복음화 누림, 24, 25 나오는데 우리도 될 것이다. 남의 말로 듣지 말라는 것이다. 내 말로 받아야 한다. 언약 되어야 한다. 반드시 24시 되고 깊은 기도 될 것이다.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당신의 뜻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을 계속 더 주시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나셨다. 믿어야 한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살리고 계신다. 이 살림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나는 안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언약에 있으면 나를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고 우리의 지금 있는 문제에서 반드시 해방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오히려 모든 문제를 정복할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될 것이다.

고난이 있는 이유, 왜 고난이 심한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임을 알기 바란다. 많은 이유 있겠지만 근본적이고 틀림없는 이유는 나를 고치기 위함이다. 내가 뭔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맘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고치려는 것이다.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목표인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또 다른 고난이 올 것이다. 그래도 또 원망하면 또 고난 올 것이다. 인간은 타락해서 약해졌다. 고난이 없으면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를 생각해야 자기를 고치는 것이다. 자기를 고쳐야 하나님과 맞을 것이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늘 맞고 24시 맞고 평생 맞으면 하나님이 계속 축복할 것이다. 안 맞으면 하나님이 걱정을 한다. 고난이 있는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너를 고치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치유되어야 한다.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 질문 늘하고 있으면 분명 답이 올 것이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게 될 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차적 목적은 우리를 고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치유의 과정이다. 깊이 내 고난을 묵상해봐야 한다. 왜 그럴까. 그리고 바른 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나를 고쳐야 한다. 이런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 바란다. 우리가 언약을 잡으면 누구든지 부활한다. 그리고 인생 부활한다.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생명 부활 뿐만 아니라 인생 부활한다. 문제 역전되는 권세가 부활의 권세이다.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깬 권세이다. 이것을 믿고 언약되기 바라고 한주간 누리고 승리하기 바란다.